

## 대만 총통 “일국양제 거부”

연임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를 열어젖힌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중국이 강요하는 ‘일국양제’ (한 국가 두 체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 취임연설 하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이날 타이베이빈관 야외무대에서의 취임 연설에서 “우리는 베이징 당국이 일국양제를 앞세워 대만을 왜소화함으로써 대만해협의 현 상태를 파괴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는 우리의 굳건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일국양제를 거부했지만, 중국과 대만이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이 총통은 연설 중 시진핑 국가주석을 ‘바다 건너편의 지도자’로 부르면서 함께 책임을 지고 양안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차이 총통의 일국양제 부정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다. 당장 중국 대만관공실은 대변인 명의 성명

을 내고 일국양제 관철 의지를 강조하면서 “어떤 국가 분열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이 총통 역시 일상이 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발전을 가속화하고 전시 동원 예비군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함·항공기·우주 분야에 이르는 방위 산업 육성 의지도 드러냈다.

특히 차이 총통 지지 세력 중 강경파는 헌법을 고쳐 대만 독립을 실질적으로 선언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차이 총통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차이 총통 집권 2기 동안 헌법 수정 문제는 가뜰이나 악화한 양안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전날 공식 성명을 내고 차이 총통의 집권 2기 시작을 축하했다. 대만 외교부는 “미국 국무장관이 대만 총통의 취임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라며 “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칭송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 브라질 대통령 퇴진 운동 확산

브라질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단체들도 가세하면서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브라질리아에서 지난 20일 보우소나루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자당(PT)을 비롯한 7개 좌파 정당은 전날 호드리구 마이아 하원 의장에게 보우소나루 대통령 탄핵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개별 정당이나 의원이 탄핵 요구서를 낸 적은 여러 번 있었으나 공동명의로 제출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노동계와 인권·농민·빈민·원주민 등 각 분야의 400여개 단체도 탄핵 요구서에 서명하면서 상당한 파장을 예고했다.

이들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공공보건을 해치고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의회·대법원 폐쇄와

군부의 정치 개입을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태를 부추겼다고 했다. 탄핵 요구서 제출에 맞춰 좌파 정당원과 사회단체 회원들은 의회 앞에서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한편,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정치권의 탄핵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중도 성향 정당들과 접촉을 확대하면서 의회에 지지 기반을 넓히고 있다. 탄핵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표결을 통해 부결시킬 것이라는 전략이다.

브라질 헌법상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할 것인지 여부는 하원의장의 결정에 달렸으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탄핵 요구가 계속되면서 마이아 하원의장은 갈수록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고 있다.

## 이탈리아, 밤거리 젊은이들 골치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봉쇄 조치 완화 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밤문화를 즐기는 젊은이들이 문제로 떠올랐다.

21일 ‘뉴시스’가 AFP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콘테 총리는 이날 의회에 출석해 “최악의 상황이 지난 것은 생활방식을 바꾼 시민들 덕분”이라며 “현 단계는 어느 때보다도 안전거리 존중과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봉쇄 조치 완화 이후 일부 도시에서 밤문화를 즐기는 젊은층이 늘어난 데 대해 “지금은 파티를 하고 밤문화를 즐기며 모임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의 루카 자이아 주지사는 술집 밖에서 청년 수십 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모여 있는 장면이 포착됐으며 엄중한 경고를 하고 나섰다.

로마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한 시민은 젊은이들이 새벽 늦게까지 모임을 갖고 있다며 “다들 할 만큼 했고 이제 자유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마스크를 갖고 있지만 음료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다고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AFP는 봉쇄 기간 사람들의 외출을 단속하는데 바빴던 이탈리아 경찰이 이제부터는 유흥가 일대에서 순찰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탈리아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다. 실시간 글로벌 통계웹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이탈리아의 누적 사망자는 3만2330명이다. 확진자는 모두 22만7,364명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3월 중순 전국적인 봉쇄령을 내렸다가 4월 말부터 확산세가 뚜렷하게 둔화하자 단계적으로 봉쇄 조치를 완화를 시작했다. 지난 18일부터는 대부분 상점과 음식점이 영업을 재개했다.

법률 문제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www.suhl.com  
info@suhl.com

###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 서 & 서 법률사무소

- **가정법 Family Law**  
이혼, 양육권/방문권, 입양, 리빙트러스트, 혼전(후) 계약
- **이민법 Immigration Law**  
가족/취업이민, 신분변경 E-2, H1B, L, O visa
- **민사/형사법 Civil/Criminal Law**  
민사소송, DUI
- **상법 Business Law**  
법인설립, 계약서
- **번역 업무도 가능합니다**

**서자경 변호사**  
Ja K. Suh, Esq.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Certified by the State Bar of CA  
Univ. of Missouri-Columbia 법대 (J.D.)  
Univ. of Missouri-Columbia 비평론 석사

**서자현 변호사**  
Ja H. Suh, Esq.  
California Western 법대 (J.D., Dean's List)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멤버(AILA)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 협회 위원회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 이사역임  
오렌지 카운티 회장단 협회 회원 역임

**L.A. & O.C. (714)368-1655**  
161 Fashion Ln, Suite 111, Tustin, CA 92780

**San Diego (858)622-6279**  
4660 La Jolla Village Dr. #500, San Diego 92122

**Vista (760)643-4084**  
380 South Melrose Dr. #363, Vista, CA 92081